

임시·일용직 고용과 업종별 임금 및 생산성

강 승 복*

I. 머리말

2004년 현재 우리나라 피고용자(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의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8.8%로 나타나고 있는데, 흔히 임시·일용직 고용증가의 원인으로 ‘노동비용 절감’, ‘직무구조의 변화’, ‘고용유연성 확보’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업종 내부의 시각에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을 둘러싸고 상호간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는 크게 해당 업종의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 임금 등 임금적 요소, 그리고 노동생산성 등 비임금적 요소 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서는 업종별 임시·일용직 고용과 이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동 조사 중 월평균 임금 등을 추가로 조사한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검토해 보겠다.

II. 최근의 업종별 임금과 고용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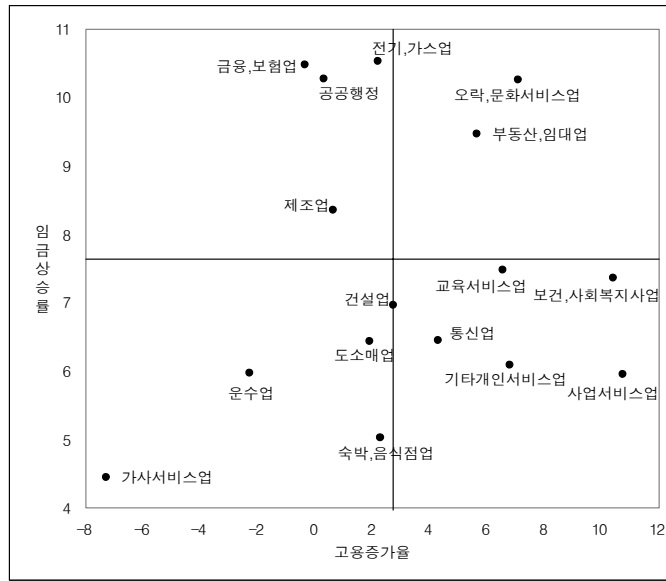
1. 고성과인 동시에 고용성장적인 업종의 수는 미미한 수준

2000년 이후 2004년까지의 4년간 평균 임금상승률과 고용(임금근로자)증가율을 보면,

*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연구원(kangsb@kli.re.kr)

[그림 1] 업종별 임금상승률 및 고용증가율(2000~2004년)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04.
 _____,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 2004. 8.

<표 1> 업종별 임금상승률 및 고용증가율(2000~2004년)

(단위: %, 순위)

전 업 종	고용증가율		임금상승률	
		순 위		순 위
전 업 종	2.8	-	7.8	-
제조업	0.6	12	8.4	6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2	10	10.5	1
건설업	2.7	8	7.0	9
도매 및 소매업	1.9	11	6.4	11
숙박 및 음식점업	2.2	9	5.0	15
운수업	-2.3	15	6.0	13
통신업	4.3	7	6.5	10
금융 및 보험업	-0.3	14	10.5	2
부동산 및 임대업	5.6	6	9.5	5
사업서비스업	10.7	1	6.0	1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	0.3	13	10.3	3
교육서비스업	6.5	5	7.5	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0.4	2	7.4	8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7.1	3	10.3	4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6.8	4	6.1	12
가사서비스업	-7.3	16	4.5	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_____,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고용증가율은 2.8%의 저조한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임금상승률은 7.8%의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그림 1]은 2004년 현재 업종별 임금상승률과 고용증가율을 동시에 나타낸 것으로서 횡축과 종축에 그려진 선은 전업종 평균값을 나타내는데, 이를 기준으로 전체 16개 업종을 고성과 고용성장업종(I군), 고성과 고용저조업종(II군), 저성과 고용성장업종(III군) 및 저성과 고용저조업종(IV군) 등의 4개 업종 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업종별 분포를 보면, 국민경제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I군에는 오락, 문화서비스업 등 2개 업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II군에는 제조업 등 4개 업종, III군에는 사업서비스업 등 5개 업종, IV군에는 가사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분포하고 있다.

4개 업종 군에 속하는 업종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고성과 고용성장업종인 I군에는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이 속해 있는데 이들 산업은 주5일제 확산,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으로 인해 향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들이다. 고성과 고용저조업종인 II군에는 제조업, 전기·가스업 등의 전통업종을 비롯하여 공공행정업 등의 공공부문 업종들이 주로 속해 있는데, 제조업은 최근 경기악화로 인해 고용증가율은 주춤거리고 있으나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한 결과 비교적 높은 임금상승률을 지속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행정업을 비롯한 공공부문 업종들의 경우 임금은 지난 몇 년간 시장임금에 근접할 정도로 상승을 지속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고용증가는 조직의 특성상 그다지 증가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저성과 고용성장업종인 III군에는 교육서비스업, 통신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및 사업서비스업 등이 속해 있는데 이들 업종의 특징은 최근 서비스업 시장규모의 확대 추세로 인해 신규로 진입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으나 시장에서의 수익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업종들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경제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저성과 고용저조업종인 IV군에는 가사서비스업, 운수업, 건설업,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 속해 있는데, 이들 업종들은 서비스업 중 주로 영세 서비스업에 속하는 업종들로서 시장규모는 이미 신규진입과 확장이 어려운 포화상태일 뿐만 아니라 경기위축에 따라 수익성도 좋지 않은 최근의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2. 제조업 등 전통업종에서 임시·일용직 비율은 낮고 임금은 높아

업종별로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율과 더불어 이들의 상용직 근로자 대비 임금을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비율은 전기·가스업의 14.4%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의 92.0%까지 비교적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상용직 대비 상대임금은 주로 40~60%대 사이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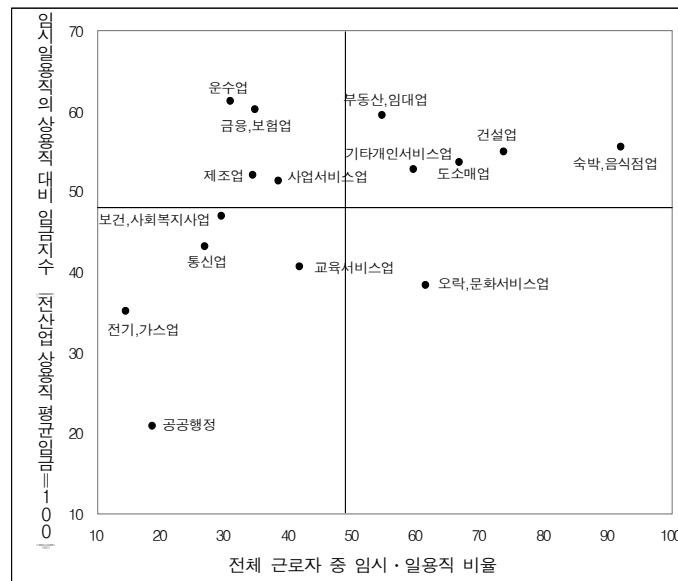
업종별 임시·일용직 고용비율과 상용직 대비 임금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 2]에서 횡축과 종축에 그려진 선은 전업종 평균값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위와 마찬가지로 이를 기준으로 15개¹⁾ 업종을 4개의 업종 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임시·일용직 비율과 상용직 대비 임금지수가 모두 전업종 평균값보다 높은 업종들은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주로 영세서비스업들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고임금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임시·일용직 비율은 높으면서 상용직 대비 임금지수가 낮은 업종은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업종의 고용증가가 저임금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임시·일용직 비율은 낮으나 상용직 대비 임금지수가 높은 업종은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등 대체로 전통적 성격이 강한 업종들로 나타났으며, 임시·일용직 비율과 상용직 대비 임금지수가 모두 낮은 업종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통신업, 교육서비스업, 전기·가스업, 공공행정업 등 주로 공공적 성격이 강한 업종들로 나타났다.

[그림 2] 임시·일용직 비율 및 상용직 대비 임금지수(2004년)

(단위: %, 지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04.
 _____,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 2004. 8.

1) 가사서비스업은 2004년 현재 상용직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대임금을 구하지 못하였다.

〈표 2〉 임시·일용직 비율 및 상용직 대비 임금지수

(단위: %, 지수)

	임시·일용직 비율					상용직 대비 임금지수(상용직=1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0	2001	2002	2003	2004
전 업 종	52.1	50.8	51.6	49.5	48.8	52.1	50.8	51.6	49.5	48.8
제조업	42.2	39.6	39.2	36.1	34.3	55.2	54.4	57.9	51.7	52.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2.5	16.4	13.8	13.9	14.4	45.6	43.1	53.4	38.7	35.2
건설업	73.3	71.8	73.2	74.6	73.6	56.2	56.3	63.4	55.9	55.0
도매 및 소매업	68.8	68.1	68.8	66.8	66.7	55.4	54.7	59.1	54.8	53.6
숙박 및 음식점업	91.7	91.7	91.7	92.3	92.0	56.5	59.4	61.2	53.4	55.6
운수업	27.0	25.6	28.6	29.0	30.9	67.3	66.3	69.6	64.7	61.3
통신업	25.6	24.0	26.1	28.5	26.7	48.7	49.7	50.9	42.3	43.2
금융 및 보험업	40.0	41.3	39.7	33.4	34.6	52.1	55.0	63.4	59.7	60.2
부동산 및 임대업	58.7	57.6	59.4	56.4	54.5	62.4	64.6	74.9	57.4	59.6
사업서비스업	44.2	40.3	41.6	42.4	38.4	52.6	51.0	54.1	50.4	51.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	28.4	24.9	23.5	16.8	18.6	28.9	25.8	26.2	20.6	21.0
교육서비스업	39.2	39.8	41.9	41.7	41.5	42.3	46.9	42.8	40.1	40.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9.9	30.6	30.6	29.1	29.4	54.2	49.0	53.5	49.1	47.0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68.4	67.2	66.7	58.7	61.4	41.7	40.5	43.2	40.2	38.4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55.2	55.5	57.9	58.4	59.4	55.8	54.1	58.4	52.3	52.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_____,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III 업종별 상용직 임금과 임시·일용직 고용

1. 서비스업의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 임금수준 모두 평균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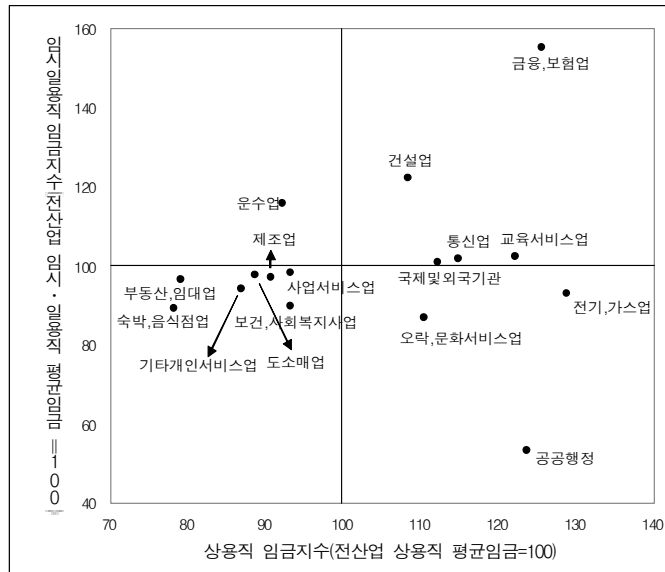
다음으로 업종별 임금수준의 차이를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여 보자. 전업종의 상용직 평균임금을 100.0이라 했을 때 해당 업종의 상용직 임금지수를 계산하여 보면, 금융 및 보험업이 125.4로 가장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78.1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한편,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업종별 임시·일용직 임금지수는 금융 및 보험업이 155.3으로 가장 높으며 공공행정업이 53.4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 상용직 임금지수와 임시·일용직 임금의 관계를 그려보면 [그림 3]과 같은데, 이들도 평균값을 기준으로 크게 4개 업종 군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임금이 모두 전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 건설업, 통신업 등 5개 업종인데, 이들은 임금의 배분을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이 모두 고임금의 형태로 가져가는 업종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용직 임금은 높지만 임시·일용직 임금이 평균값보다 낮은 업종은 전기·가스업,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 공공행정업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임금을 상용

[그림 3]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 임금지수(2004년)

(단위 : 전업종=1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04.
 _____,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 2004.8.

<표 3>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 임금지수

(단위 : 전업종=100.0)

	상용직 임금지수					임시·일용직 임금지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업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제조업	90.7	90.8	90.8	90.3	90.6	97.7	96.6	96.1	96.0	97.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15.2	117.7	117.7	133.5	128.7	102.4	99.3	115.0	106.4	93.3
건설업	108.8	107.3	107.3	105.6	108.2	119.3	118.1	124.4	121.6	122.4
도매 및 소매업	92.8	92.3	92.3	89.2	88.6	100.2	98.8	99.8	100.6	97.8
숙박 및 음식점업	84.8	83.4	83.4	81.2	78.1	93.5	96.9	93.4	89.2	89.4
운수업	93.9	95.0	95.0	90.2	92.0	123.2	123.4	121.1	120.1	116.0
통신업	115.2	109.9	109.9	114.7	114.7	109.5	106.9	102.3	99.8	101.9
금융 및 보험업	121.1	121.1	121.1	119.9	125.4	123.0	130.5	140.5	147.3	155.3
부동산 및 임대업	73.1	74.2	74.2	81.4	78.9	88.9	93.7	101.6	96.2	96.7
사업서비스업	102.1	97.6	97.6	96.5	93.1	104.7	97.5	96.6	100.2	9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	113.5	119.3	119.3	121.1	123.6	63.9	60.2	57.1	51.3	53.4
교육서비스업	120.5	120.0	120.0	123.3	122.1	99.4	110.2	93.9	101.6	102.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3.1	96.0	96.0	89.7	93.1	98.3	92.0	94.1	90.6	90.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104.9	111.5	111.5	102.4	110.3	85.3	88.4	88.0	84.8	87.1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87.3	89.0	89.0	88.9	86.7	95.0	94.3	95.2	95.7	94.3
국제 및 외국기관	90.5	119.3	119.3	112.6	112.0	136.1	110.0	104.1	73.6	101.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_____,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직은 고임금, 임시·일용직은 저임금의 형태로 배분함으로써 내부의 임금격차를 확대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와 정반대의 경우로서 상용직 임금은 낮지만 임시·일용직 임금이 높은 업종은 운수업 1개 업종뿐이었으며,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임금이 모두 낮은 업종으로는 부동산 및 임대업 등 7개 업종이 속해 있는데 이들은 주로 영세서비스업, 전통업종 등 최근 시장에서 수익성이 그다지 좋지 않은 업종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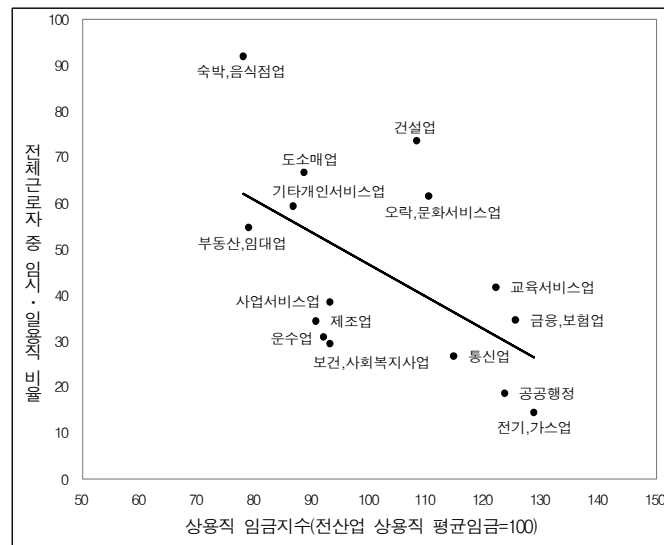
2. 상용직 임금이 높은 업종에서 오히려 임시·일용직 비율이 낮아

다음으로 업종별 상용직 임금과 임시·일용직 비율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자. [그림 4]는 업종별 상용직 임금지수를 횡축에, 임시·일용직 비율을 종축에 나타낸 것인데 업종별 상용직 임금지수와 임시·일용직 비율간에는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는 상용직 임금이 높은 업종일수록 임시·일용직 비율이 낮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업종 중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임시·일용직 비율은 전체 15개 업종 중 가장 높은 92.0%이었지만 상용직 임금지수는 전업종 중 가장 낮은 78.1을 기록한 반면, 전기·가스업의 임시·일용직 비율은 15개 업종 중 가장 낮은 14.4%, 상용직 임금지수는 15개 업종 중 가장 높은 128.7을 기록하여 명확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림 4] 상용직 임금지수 및 임시·일용직 비율(2004년)

(단위 : 지수,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04.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 2004. 8.

〈표 4〉 상용직 임금지수 및 임시·일용직 비율

(단위: 전업종 임금=100.0, %)

	상용직 임금지수					임시·일용직 비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0	2001	2002	2003	2004
전 업 종	100.0	100.0	100.0	100.0	100.0	52.1	50.8	51.6	49.5	48.8
제조업	90.7	90.8	90.8	90.3	90.6	42.2	39.6	39.2	36.1	34.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15.2	117.7	117.7	133.5	128.7	22.5	16.4	13.8	13.9	14.4
건설업	108.8	107.3	107.3	105.6	108.2	73.3	71.8	73.2	74.6	73.6
도매 및 소매업	92.8	92.3	92.3	89.2	88.6	68.8	68.1	68.8	66.8	66.7
숙박 및 음식점업	84.8	83.4	83.4	81.2	78.1	91.7	91.7	91.7	92.3	92.0
운수업	93.9	95.0	95.0	90.2	92.0	27.0	25.6	28.6	29.0	30.9
통신업	115.2	109.9	109.9	114.7	114.7	25.6	24.0	26.1	28.5	26.7
금융 및 보험업	121.1	121.1	121.1	119.9	125.4	40.0	41.3	39.7	33.4	34.6
부동산 및 임대업	73.1	74.2	74.2	81.4	78.9	58.7	57.6	59.4	56.4	54.5
사업서비스업	102.1	97.6	97.6	96.5	93.1	44.2	40.3	41.6	42.4	3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	113.5	119.3	119.3	121.1	123.6	28.4	24.9	23.5	16.8	18.6
교육서비스업	120.5	120.0	120.0	123.3	122.1	39.2	39.8	41.9	41.7	41.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3.1	96.0	96.0	89.7	93.1	29.9	30.6	30.6	29.1	29.4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104.9	111.5	111.5	102.4	110.3	68.4	67.2	66.7	58.7	61.4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87.3	89.0	89.0	88.9	86.7	55.2	55.5	57.9	58.4	59.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____,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3. 임시·일용직 비율은 생산성에 반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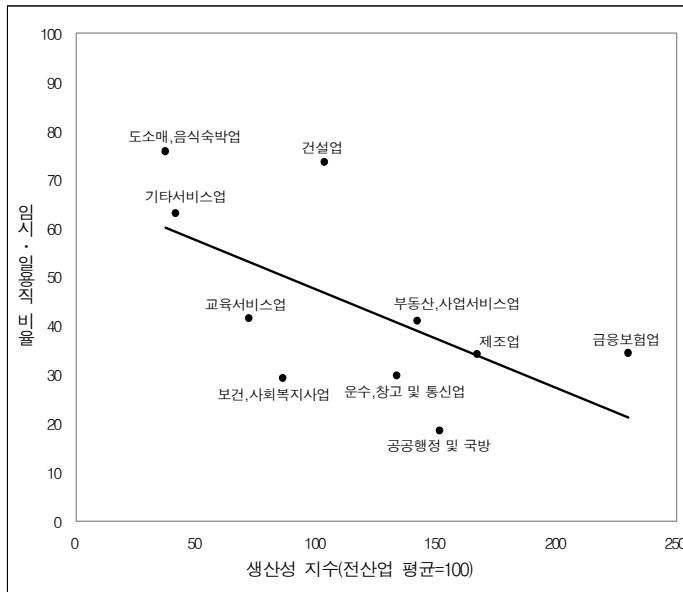
업종별 임시·일용직 비율의 편차는 앞에서 분석한 상용직 임금수준 등의 임금적 요인 이외에도 업종별로 요구되는 고용유연성의 차이, 노동생산성 등 부가가치 창출능력의 차이 등 비임금적 요인들과도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고용유연성 차이에 의한 임시·일용직 비율의 차이란 예컨대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경기변동과 계절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인력조정도 제조업보다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임시·일용직 비율을 제조업보다 높게 유지하게 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업종별 부가가치 창출능력과 임시·일용직 비율과의 관계²⁾를 보면 [그림 5]와 같은데 횡축에 산업별 노동생산성 지수, 종축에 임시·일용직 비율을 표시하였다. 이를 보면 생산성이 높은 업종일수록 임시·일용직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생산성은 가장 낮은 37.1에 불과하였으나 임시·일용직 비율은 가장 높은 75.9%를 기록하였고, 반대로 금융 및 보험업의 생산성은 11개 업종 중 가장 높은 229.8을 나타냈으나 임시·일용직 비율은 34.6%의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2) 생산성 산출을 위한 업종별 GDP가 구산업분류(제7차 표준산업분류)로 발표되기 때문에 업종별 임시·일용직 비율도 구산업분류에 근거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5] 생산성과 임시·일용직 비율(2004년)

(단위: 지수,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0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04.

<표 5> 생산성과 임시·일용직 비율

(단위: 지수, %)

	노동생산성					임시·일용직 비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0	2001	2002	2003	2004
전 업 종	100.0	100.0	100.0	100.0	100.0	52.1	50.8	51.6	49.5	48.8
제조업	145.0	146.2	152.3	157.1	166.9	42.2	39.6	39.2	36.1	34.3
건설업	111.8	115.3	103.6	104.8	103.5	73.3	71.8	73.2	74.6	73.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9.8	40.0	39.7	38.3	37.1	77.1	76.7	77.1	75.8	75.9
운수·창고 및 통신업	118.0	126.8	128.5	134.1	133.6	26.7	25.3	28.1	28.9	29.8
금융 및 보험업	192.9	203.1	247.0	234.9	229.8	40.0	41.3	39.7	33.4	34.6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205.8	180.4	167.5	159.8	141.7	47.1	43.6	45.0	45.0	41.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복지행정업	158.3	170.5	168.3	155.2	151.2	28.4	24.9	23.5	16.8	18.6
교육서비스업	88.8	88.0	81.9	74.0	72.1	39.2	39.8	41.9	41.7	41.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20.9	99.9	89.3	92.9	85.8	29.9	30.6	30.6	29.1	29.4
기타 서비스업	48.5	46.5	45.9	46.5	41.4	65.5	65.1	65.7	63.3	63.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각년도.

IV. 맺음말

이상에서 임시·일용직 비율은 업종별로 낮게는 14.4%에서 높게는 92.2%로 나타나는 등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 등 전통적 업종보다는 서비스업 등 비교적 최근에 발달한 업종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업종별 임시·일용직 비율의 편차는 노동시장 내·외부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되어 발생한 현상이지만 본 원고는 이를 상용직 임금수준 및 노동생산성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업종별로 살펴볼 때 임시·일용직 비율은 상용직의 높은 임금수준과 노동생산성에 대하여 역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이 상용직 임금을 높이거나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키면 임시·일용직 비율이 낮아진다는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양자간의 사후적인 관계를 나타낸 것이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